

95.12.28

가사일등 무급노동 가치 국가 공업생산량 맞먹어

독일 통계청 분석

【베를린=연합】가사노동을 중심으로 한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한나라 전체의 공업생산량과 맞먹는 것으로 독일 통계청의 조사결과 나타났다.

독일 <DPA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은 서독지역 11개주 6천2백 가정에서 어떻게 하

루를 보내는지를 분단위로 쪼개 조사했다. 그 결과 가사노동이나 각종 사회봉사활동 등 급여로 환산되지 않는 무급 노동시간을 독일 전체가구로 확대적용할 경우 92년을 기준으로 7백70억시간으로 집계됐다.

또 이 가운데 3분의 2를 여성의 가사노동이 차지해 같은해 독일 전체 취업인구의 유급노동시간인

4백80억 시간을 웃돌았다.

조사는 무급노동이 단순작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11.7마르크(약 6천3백원)의 가상임금을 매겨 총가치를 6천2백30억달러(약 4백80조원)로 산출했다. 이는 독일 전체 산업생산액 가운데 농업 등 1차산업과 서비스업인 3차산업을 제외한 공업생산량보다 많다.

가사노동의 경우 직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여성이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부들은 하루평균 5시간26분을 집안일에 매달리고 있는 반면 남편들은 평균 1시간20분이었다. 남편이 더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은 자동차 돌보기, 스포츠클럽이나 정치단체에서 무급으로 일하기 정도였다.